

창문 열면 쪽빛바다 한눈에... 노후가 즐겁죠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국도 77호선 해안도로변에 세워져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김찬규(74)·진순심(71)씨 부부의 조립주택. 김씨는 4개월여 진통끝에 이 집을 직접 설계했다.

■ 해남 송지면 김찬규·진순심 부부 조립주택

해남읍에서 땅끝방면 국도 77호선을 타고 승용차로 40여 분을 달려가면 쪽빛 바다가 감도는 바닷가 바로 옆에 이국적인 분위기의 집 한 채가 눈에 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처음 보는 이에게 대뜸 차 한잔 대접하겠다는 이가 바로 이 집 주인 김찬규(74)·진순심(71)씨 부부다.

김씨는 “집이 국도 바로 옆에 있다 보니, 커피숍으로 생각하고 찾아오는 이도 많고, 집을 구경하는 관광객도 많다”면서 “우리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차 한 잔 대접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넉넉한 인심을 전했다.

김씨의 집 앞을 지나는 국도 77호선 해안도로는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포함될 정도로 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지난 99년 용담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한 김씨는 이후 4년여를 할 일 없이 세월만 보냈다고 한다. 낚시가 취미인 김씨는 2004년 어느 날 땅끝 인근으로 여행을 왔다가 송지면 통호리에 위치한 집터를 발견하곤 전원생활을 결정했다.

김씨는 “집 앞에는 쪽빛 바다가, 뒤로는 달마산 자락이 감싸고 있는 집터를 본 순간 이곳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도시생활에 젖어 있는 아내를 설득하느라 힘들긴 했지만, 요즘은 너무 만족스런 삶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가 이곳에 등지를 뜬 과정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우선 집터가 도로보다 1m정도 낮은 게 가장 큰 문제였다. 평당 15만 원에 1천 200평을 구입한 김씨는 인근 도로 공사 현장에서 2천만 원 어치의 흙을 구입해 지대를 높였다.

집 설계는 김씨 자신이 직접 했다. 집 모양을 연필로 그리고 지우기를 4

개월여 반복했다.

“사실 설계도가 없는 집”이라는 김씨는 “대충 집 외부 모양을 완성하고, 평면도까지 마친 뒤 건축사무소를 찾아갔다”며 “조립식으로 조그맣고, 예쁘게 지을 생각이었는데 제대로 된 설계도 없이 짓다 보니 건축비가 애초 예산보다 많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김씨의 집은 미국식 조립식 주택으로 방 2칸, 욕실, 거실 겸 주방이 있는 건평 20평짜리 아담한 집이지만, 건축비만 4천 500만 원이 들어갔다.

여기에다 조립식 건축물은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집을 지었는데 집이 국도 바로 옆에 위치한 탓에 도로점용허가를 내느라 두달간의 시간을 소비하기도 했다.

교장 정년 퇴임 후 땅 매입 해 직접 설계

집 앞 국도 ‘한국 아름다운 길 100선’ 포함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2005년 8월 새집으로 입주한 김씨 부부는 요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자신이 신선이 된 기분”이라는 김씨의 취미는 낚시와 산책, 등산 등이다. 특히 집 옆으로 흐르고 있는 조그마한 계곡은 김씨만의 아지트다.

김씨는 “어느 날 집 근처를 산책하던 중 조그마한 계곡을 발견했는데, 인적이 없고 물이 깨끗해 식수로도 사용하고 있다”며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이곳이 지상 낙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요즘 김씨는 송어 낚시에 푹 빠져 지낸다.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한 바다는 감성품을 비롯한 각종 어류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요즘은 참송어가 많이 잡히는 시기다.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국도 77호선 해안도로변에서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는 김찬규씨 부부가 텃밭에서 깨와 고구마 등 각종 농작물을 돌보고 있다.

전원생활 부부 중 가장 힘든 점은 아내의 소일거리가 없다는 점인데, 김씨 부부는 목포의 지인들과 계모임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아내 진씨는 “매달 2차례 정도 목포에서 친척과 친척 등과 함께 계모임이나, 친목 모임을 하고 있다”면서 “평소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등도 이때를 이용해 구입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다.

김씨는 그동안 자신들과 친척, 친구 등이 200평 넘게 다녀갔는데, 집이 너무 좁아 불편한 점이 많다고 했다. 김씨는 “전원생활을 하면 지인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손님들을 밖에서 자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최소한 건평이 30평 정도는 돼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국토 최남단 땅끝 일출 보고

고천암 가창오리 군무 감상

■ 주변 가볼만한 곳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桶湖里)는 지형이 통처럼 생기고 앞에 바다가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국토 최남단인 땅끝을 품에 안고 있는 송지면은 해남 관광의 메카다.

고천암 갈대밭은 14km의 돌래를 따라 갈대들이 광활하게 서식하고 있고, 해남을 부호리에서 화산면 연곡과 송지면 중리 해안가는 주변의 바닷가 풍경이 매우 뛰어나다.

특히 고천암 갈대밭은 멧황새, 독수리 등 희귀조류는 물론 전세계 98%의 가창오리가 겨울을 나는 곳으로 환상적인 군무를 연출하기도 한다.

이곳은 또 신비의 바닷길로도 유명해 대심까지 바닷물이 빠지면 조개잡이 등 바다를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MBC드라마 ‘허준’이 촬영되기도 했다.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승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86 / 010-722-0100

010-2530-9900